

## 보편자 이론의 딜레마?

하원재\*

### I. 보편자 이론을 위한 두 요구

보편자 이론은 두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다. 한편으로, 보편자 이론은 설명적으로 올바라야 한다. 즉, 우리의 일상적 담화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진술들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들은, 이를 이해 또는 수용함에 있어 보편자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술어(“F이다”) 또는 속성 표현(“F임”)들의 일의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가정 하에서 말이다. 다음을 보라.

**술어 귀속.** 모든 진술문들은 기본적으로 술어 귀속 문장의 형태를 띠는 한편, 각각의 술어 귀속 문장은 이를 참이게 하는 실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가령, “a는 F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a가 F임을 갖는다”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b는 F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b가 F임을 갖

---

\*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는다”가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여럿이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인 그러한 F 임이 존재한다.

**보편자 담화.** 어떤 참인 진술문은 보편자를 논항으로 갖는다. 가령, 다음 문장, “빨강은 파랑보다 분홍과 더 비슷하다”는 참인 한편, 그것의 논항인 “빨강”, “파랑”, “분홍”은 개별자가 아닌, 그 개별자가 갖는다고 여겨지는 속성처럼 보인다. 한편 이는 진정한 논항이다. 가령, 위의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색은 파랑보다 분홍과 더 비슷하다”를 추론할 수 있으며, 이 때 “어떤”은 일차 존재 양화사와 똑같이 기능한다. 따라서, 콰인 (Quine, 1948)의 언명에 따라, 보편자 담화에 있어 우리는 바로 그 속성들의 존재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설명.** 어떤 설명들은 보편자를 선제할 때 비로소 자연스러워진다. 가령, “aa는 순수한 물 덩어리이다”로부터, 우리는 aa가 본질적으로 물임을 상정하여, “물리 법칙이 같다면, aa는 표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일 때 기화할 것이다”가 참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순수한 물 덩어리는 표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일 때 기화했다”로부터 “순수한 물 덩어리는 표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일 때 기화한다”를 귀납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 경우 자연스러운 가정은, 이러한 주장들을 참이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종.** 크립키가 지적했듯, 우리가 ‘노란 금속’들을 ‘황금’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사실 황금은 노랑이 아니고 파랗다” (Kripke, 1980, 118)는 참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명사 “황금”이 단지 우리의 분류 기준을 만족하기보다는, “황금”이 직접 지시를 통해 정의됨에 따라 이를 통해 모든 황금인 것들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적 분류가 실재적 기초를 갖지 않는다면 “황금”에 대한 정의는 그러한 의미 수여 능력을 갖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자 이론은 존재론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믿기 어려운 존재자에 대해 충분한 이유 없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이론이나, 그 이론의 수용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새로운 존재자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이론은 보편자 이론으로서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는, 설명적으로 올바른 보편자 이론은 존재론적 적절성과 긴장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상기한 사례들에서 시사되는 보편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구체적 개별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들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물리적 실체 없이도 상재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러한 존재자들이 우리 세계에 실재한다고 하자면 어떻게 그런 허깨비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지고, 다른 한편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자면 어떻게 위의 사례들이 설명될 수 있느냐는 반문을 받게 될 것이다. 보편자 이론은 결국 이 두 질문 중 어느 질문을 회피하고, 어느 질문을 대면할지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딜레마는 상기한 두 요구에서 의한 것인데, 둘 중 어느 요구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딜레마이다. 철학, 또는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경험 세계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철학 이론이 경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설명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철학 이론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한편, 철학 이론이 과도한 존재론적 부담을 지우는 것 또한 기피되는 것이 마땅하다. 철학 이론의 정당화는 선험적 정당화이며, 어떤 존재자의 존재성에 대한 선험적 주장은 임의로 취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는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는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명적 요구가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없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답해질 수 있다. 한편, 설명적 요구가 적절한 존재론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것은 이것이 설명적 우선성 도입 요구로 이해되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그런데 설명적 우선성에의 요구란, 반드시 어떤 존재론적 우선성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 그런 요청이다. 따라서 딜레마란 발생할 필요가 없었다. 끝으로, 나는 자연중 술어로부터의 요구에 답하고자 시도한다.

## II. 수용할 만한 존재자들

### 1. 단순 개체

적어도 존재론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개체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 존재론에 따라 감각 소여일 수도, 일상적 사물들일 수도, 모든 부분들 및 그 부분들의 임의적인 합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어떠한 존재론에서든 단순한 개체들, 즉 일차 술어 문장의 형태로 환원했을 때 (단수 또는 복수) 개체 상황의 지칭체가 되거나 속박 변항의 값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체들이 상정된다. 이들을 “단순 개체”, 또는 줄여서 “개체”라고 부르자.

이러한 단순 개체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모든 개별자들이 실제로는 보편자의 다발 또는 집적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서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러한 이론에 있어 상정되는 단순 개체들은, 반복 불가능하고 (물리적) 인과력을 갖는 그러한 존재자들뿐 아니라, 반복 가능하며, 어찌면 인과력을 갖는 대신 (형이상학적인) 구성적 능력만을 갖는 그러한 존재자들을 포함할 뿐이다. 개체들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문제와는 별개로,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어반복적인 사실이다.

어떠한 개체들을 단순 개체로 간주할 것이냐의 문제는 존재론적 적절성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본고에서 존재론적 적절성의 문제는 기존에 수용된 존재론에 너무나 많은, 또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자를 추가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반면 단순 개체를 선별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존재론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전자는 후자에 선행한다. 가령, 구체적 개별자들과 너무나 이질적인 추상적 보편자를 거부하고자 했다면, 구체적 개별자들이 단순 개체로 이해되어 있어야 했을 것이다.

## 2. 특성과 유형화

한편 우리는 개체들이 어떤 원초적 특성을 소유하는 것을 고려함 직하다. 가령, 일상적 사물들을 단순 개체로 간주하는 존재론에서는 사물들이 소유한 질적 특성 따위가 원초적이라고 볼 것이다. 물리학적 기본 입자들을 단순 개체로 간주하는 존재론에서는, 가령 쿼크가 갖는 위/빨강/바다 따위의 특성을 원초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어떤 개체들이 정의됨에 따라 곧장 요구되는 것으로, 임의 처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론은 개체 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단순 개체 간 부분론적 합을 인정하는 존재론에서는 개체  $\overline{a_1}$ 과  $\overline{a_2}$ 의 합성  $\overline{a_1 \sqcup a_2}$ 가 ‘합성’이라는 형식적 구조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감각 소여를 단순 개체로 간주하는 존재론에서는 개체 간 유사성이나 위치적 관계 따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Russell, 1912) 견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구조가 어떤 (일상 언어 구문에서 표현되는) 관계에 상응하든, 존재자의 수를 단 하나로 제한하는 존재론이 아닌 한 이러한 최소한의 개체 간 구조는 용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물론, 일종의 보편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보편자인가? 그렇지않아 보인다. 어떠한 존재론을 취하든 그 단순 개체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은 상정되어야 한다. 고로, 보편자에 대한 어떠한 이론에서도 이러한 특성들마저 배제될 수는 없다. 상기했듯, 존재론적 적절성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할 만한 존재론에 대해,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자들을 추가하는 이론이다. 이는 특성들이 존재론에 안전히 들어올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령, (초월적?) 실재론자에게는 개별자와 보편자가 일반적으로 갖는 예화 구조가 상정되어야 하며, 각 예화 구조에서 등장하는 보편자 중 일부가 같은 특성을 가질 것이 (따라서 그것들이 동일한 보편자일 것이) 요구된다. 또, 데빗 (Devitt, 1980)과 같이 술어 귀속을 근본적 사실로 두는 유명론자에 있어서도, 이름과 술어구가 일반적으로 갖는 구문론적 구조는 상정되어야 하며, 각

술어 귀속 문장에 등장하는 술어구 중 일부가 같은 문법적 내지 언어적 특성을 가질 것이 (따라서 그것들이 동일한 술어구일 것이) 요구된다. 어떤 경우에도 원초적 특성들은 존재하며, 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차이날 뿐이다.

한편 개체들의 특성을 인정함에 따라 우리는 개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1 또는 0을 개체들의 원초적 특성으로 간주하는 존재론에서, 개체  $\overline{a_1, \dots, a_n}$ 이 어떤  $n$ 항 관계  $S$ 를 이룬다고 해 보자. 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는  $\overline{(S, 1, \dots, 0)}$ 과 같은  $n+1$ 항 순서쌍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개체들  $\overline{b_1, \dots, b_n}$ 이 마찬가지로 관계  $S$ 를 이룰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overline{b_1, \dots, b_n}$  각각이 갖는 원초적 특성이  $\overline{a_1, \dots, a_n}$ 이 갖는 것과 동일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또한  $\overline{(S, 1, \dots, 0)}$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구조  $\overline{(S, 1, \dots, 0)}$ 로 표현될 수 있는 개체들을 동일한 유형 안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개체군은 이 유형의 예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유형화”라고 하자. 유형화는 단순 개체와 그들이 갖는 자체적, 구조적 특성만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므로, 문제 되는 존재론에 추가적인 존재자를 도입하지 않는다. 즉, 유형화의 도입은 존재론적으로 무고하다.

### 3. 술어 귀속과 보편자 담화

이처럼 두 부류의 존재자들, 즉 단순 개체와 특성이 존재론에 있어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함을, 또 단순 개체가 갖는 특성으로부터 어떤 유형화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나면, 설명적 요구가 문제삼았던 보편자 진술의 예시들 중 일부는 실상, 그 진리 조건의 측면에서 별다른 존재론적 문제를 만들지 않음이 확인된다.

먼저, 술어 귀속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보편자를 개체로 인정하는 존재론에서는 어떤 개별자와 어떤 보편자가 예화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이 어떤 술어 귀속이 참이라는 것과 동치인데, 개별자뿐 아니라 보편자와 예화 관계 역시 존재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므로 존재론적으로 부적절한 개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그렇지 않은 존재론에서는, 술어 귀속은 원초적 특성에 관한 귀속 또는 그렇지 않은 귀속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원초적 특성은 이미 그 존재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므로 존재론적으로 부적절한 개입은 없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후자이다.

그런데 원초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 외의 술어 귀속들 역시 유형화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가령, 미시물리적 존재자들만을 기초 개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물리적 특성만을 원초적 특성으로 인정하는 존재론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색채 술어들은 원초적 특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시물리적 존재자들 및 그 특성을 통해 색채 술어 귀속 문장을 만족하는 사건들을 유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존재론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요소들만을 가지고 (가령, 특정한 대역의 파장이나 어떤 성향 따위로 간주함을 통해) 색채 술어 귀속 문장과 동치인 문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따라서 술어 귀속 문장이 참이기 위해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존재자들을 추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편자 담화의 경우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일단, 다음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1) 빨강은 파랑보다 분홍과 더 비슷하다

이와 유사한, 질적 속성 간의 유사성 귀속 문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1) 이 과정에서 동치 문장을 제시함이 상당히 어려움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유형화를 통한 해명이 그 자체로 실패한다는 증거인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론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또는 어떤 존재론을 근본적 존재론으로 삼지 않기 위한 유인으로 기능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다. 가령, 위에서 논한 비와 같이, 미시물리적 존재론을 근본적으로 두는 이들은 (1)을, 특정한 파장들의 (평균적인) 정도를 비교하는 문장과 동치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개체 간 유사성을 인정할 경우, 루이스의 제안 (Lewis, 1983, fn. 10)을 따라, (1)을 “어떤 빨간 것이 어떤 핑크색인 것과 유사한 정도는 어떠한 빨간 것이 어떠한 파란 것과 유사한 정도보다 크다”와 같은 개체 간의 유사성 귀속 문장과 동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문장이 문제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2) 인간은 동물이다.

이는 (2)가 단지  $\forall x(Hx \supset Ax)$ 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2') 인간종은 동물종이다

와 같은 명제를 의미하게 되었을 경우가 문제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종적 분류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2')와 같은 문장이 진지하게 종에 개입한다고 이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경우, (2')는 종 존재론에 어떠한 새로운 자원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유형들의 구조를 다시 유형화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5항 구조들을 포함하는 유형’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고차 유형마저도 ‘n항 구조들을 포함하는 유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5항 구조는 n항 구조이다”는 “5항 구조들을 포함하는 유형은 n항 구조들을 포함하는 유형의 사례이다”와 동치가 될 것이다. 유종 관계에 관한 진술들은 이처럼 어떤 고차 유형과 하부 유형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문장과 동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새로운 존재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에서 지적된 두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은 속성 양화 문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3) 거미는 곤충의 해부학적 특성 중 몇몇을 공유한다 (Van Inwagen, 2004, 114)

벤 인와겐이 잘 지적하듯, (3)과 같은 문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편자들에 개입하게 한다. 그러나 (3)에 의해 개입하게 되는 그러한 보편자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부류의 존재자들은 아니다. 가령 (3)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동물들의 신체가 갖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외골격을 지남”, “견갑골의 상방 회전을 발생시킴” 따위의 술어구로, 적절한 유형화를 거쳐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과 관련한, 표현 또는 동물의 신체에 관한 표현들을 유형화하여 ‘해부학적 특성’이라는 분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3)이란 거미에게 귀속되는 술어 중 곤충에게 귀속되는 술어가 있는데, 이는 해부학적 특성이라는 유형의 한 사례이며, ... 등등의 해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도입되어야 할 추가적인 이질적 존재자 또는 과도하게 많은 존재자란 없다.<sup>2)</sup>

따라서, 우리는 술어 귀속과 보편자 담화가 무엇에 관한 진술인지를, 부적절한 존재론적 자산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설명으로부터의 요구와 자연종 술어로부터의 요구는 이처럼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 두 요구를 고찰하며, 과연 존재론

2) 이와 같은 해명은 벤 인와겐이 시도한, 주장 가능자(assertibles) 해명에 비해 이점을 지닌다. 벤 인와겐은 그의 해명에서 유형과 같은 것을 신경쓰지 않은 채 모든 불포화된 주장 가능자들을 속성으로 여기는 듯 보이는데, 이 경우 ‘내골격을 갖거나 연체생물임’과 같이, 해부학적 특성들로 구성되었지만 예화 불가능한 선언적 속성을 여전히 해부학적 특성으로 취할 수 있겠다는 의혹에 책임을 진다. 반면 본고의 해명과 같이 원초적 특성 외의 보편자들을 유형으로 해명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선언적 속성이 여타 해부학적 특성과 동류로 분류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유된 해부학적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답할 수 있다. (본고의 해명은 그러한 속성을 해부학적 특성 중 일부에 대한 유적 속성으로 볼 것이다.)

적 적절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설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 III. 자연스러운 설명

#### 1. 자연스러운 설명으로부터의 요구는 무엇에 관한 요구인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부터의 요구는 사례들에 대한 일반화된, 무시간적(eternal) 기술 중 몇몇과 연관된다. 가령, 녹색광과 적색광이 중첩된 백색면은 황색광을 반사한다. 또, 물은 표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일 때 기화한다. 이를 “법칙적 진술”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법칙적 진술은 두 측면에서 보편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각각에 상응하는 비임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한편으로, 이는 어떤 사물 집단에 대한 비임의적 분류를 요청한다. 위의 법칙적 진술을 참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섭씨 100도에서 기화하는 이리저러한 액체’를 “물”이라고 부르다거나, ‘녹색광과 적색광이 중첩된 백색면이 반사하는 파장의 광선’을 “황색광”이라고 부르다는 사회학적, 언어학적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이는, 크립키의 황금 사례에서 드러나듯, 우리가 “물”이나 “황색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임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또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물이나 황색광으로 분류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자연종의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요청은 다음 절로 넘겨 논의하도록 하자.

다른 한편으로, 이는 어떤 사물 집단이 법칙적인 성향을 가짐을 함의한다. 즉 녹색광과 적색광이 중첩된 백색면이 황색광을 반사하는 것은 단지 우연히도 모든 그런 면이 그러한 광선을 반사해서가 아니라, 어떤 법칙적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은 각 사례들에 독립적일 것임이 요구되는 듯 보인다. 따라서 이 법칙이 포함하는 것은 개체들이나 그 개체들

의 집합 따위가 아니라, 그 개체들이 소유하는 속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론은, 최소한 법칙적 진술에 개입하는 한, 보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이다.

법칙적 성향이 보편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미묘하다. 가령, 우리는 특정한 유형, 가령 위에서 언급된 ‘비임의적 분류’에 의한 그런 존재자들의 유형 K에 대해, K들이 L들과 일반적으로 맺는 관계를 기술하는 것만으로 법칙적 진술과 동치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접근 가능한 세계들의 전체를 ‘법칙적 가능성’의 양상역(modal scope)으로 간주해서, “법칙적으로 필연적이다” 따위의 표현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K이며 L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일반적으로 맺는지 등에 있어 임의적인 측면은 없다. 그럼에도 혹자는 이러한 재기술 대신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설득력이란 대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식의 요구는 자연 법칙, 귀납 추론은 물론 술어 귀속이나 보편자 지칭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이는 (1)에 대한 유명론적 해명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을 위해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현상론적으로(phenomenologically) 올바른 설명을 준다고 답할 지도 모른다. 단지 어떤 개체가 생래적으로(intrinsically) 갖는 가능한 경우의 수들뿐 아니라 그 개체 및 다른 개체들이 갖는 이러저러한 성질들이 공유되기 위해 필요한 보편자가 있고, 그것이 술어 귀속을 참이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단지 진리 조건적으로 동치인 문장을 통한 재기술로는 부족한 설명적 잔여가 있다.

보건대, 이 사례들에서 문제 되는 요구란 일종의 설명적 요구에 해당한다. 특히, 어떤 설명의 수용 조건에 관련된 그러한 요구이다. 어떤 설명 문장이 피설명항과 진리 조건적으로 동치라 하더라도, 그 설명 문장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설명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에 있어 특정한 대상이 요구되며, 따라서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 존재자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요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요구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i) 올바른 설명은 그 수용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i) 수용할 만한 설명의 설명항에서 언급되는 대상들은 피설명항에서 언급되는 대상들보다 설명적으로 우선한다; (iii) 그런데 설명적으로 우선하는 대상들은 설명되는 대상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 (iv) 따라서 수용할 만한 설명의 설명항에서 언급되는 대상들은 우리의 존재론에 산입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심적인, 또는 논쟁적이어 보이는 논제는 (iii)이다. 즉,

**E-O 함축** 설명적 우선성은 존재론적 우선성을 함축한다.

## 2. 설명적 우선성은 존재론적 우선성을 함축하는가?

그런데 E-O 함축 논제를 논파하는 간단한 경우들이 있다.

(4) 한국전쟁으로 인해 김세돌씨는 부모를 여의었다.

(5)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가 타당하다.

E-O 함축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면, 한국전쟁은 김세돌, 김세돌의 부모, 김세돌의 부모가 사망함 등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개인의 사망보다 한국전쟁과 같은 거시적 사건이 근본적인 존재자라는 주장은 믿음 직하지 못하다. 한편 (4)의 설명항을 보다 근본적인 사건으로 환원하여

(4') 박수일의 사격으로 인해 김세돌씨는 부모를 여의었다

라고 한다면, 이는 (4)가 설명하는 바와는 상이한 것을 설명하는 셈이 된

다. 따라서 (4')는 (4)에 대한 올바른 환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4') 김일성의 선전포고로 인한 사람들의 전투로 인해 김세돌씨는 부모를 여의었다

와 같은 환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4)가 보여주는 설명적 의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듯하다.

또, (5)와 같은 법칙적 진술에서도, 논증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장들 혹은 그 문장들의 나열이, 논증에 적용되는 추론 규칙보다 덜 근본적이라는 생각을 믿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꼴의 형태를 갖는 모든 추론들이 타당하다는 점으로부터 전건 긍정 규칙이 받아들일 만한 추론 규칙임을 생각함 직하며, 이러한 생각은 추론 규칙에 비해 그 규칙이 적용되는 언어적 존재자들 및 그로 구성되는 문장들의 나열이 더 근본적인 존재자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 (5)를,

(5')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가 타당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가 타당하다.

또는

(5'')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가 타당하기 때문에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로 환언할 수는 없다. (5')와 (5'')가 올바른 설명이기는 하지만, 이는 (5)의 설명적 의의를 보존하지 못한다.

이처럼 E-O 함축에 대한 반례들이 존재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란 단지 그것이 사실에 부합함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4)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김세돌씨의 가정사에 영향을 주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며, (5)는 ‘왜 바로 이 추론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설명이 올바른 것은 그 설명향이 보다 근본적인 존재자들을 통한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근본적인 사실들을 통한 환원적 설명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이 묻은 바에 대한 이해 가능한 답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E-O 함축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E-O 함축에 기대어 보편자의 존재를 요청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 때 보편자가 설명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4)나 (5)에서 ‘한국전쟁’, ‘전진 긍정 규칙’이 그러하듯, 보편자 개념이 그것을 통해 설명 되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나아가, 실재적으로는 설명향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자를, 술어 귀속이나 보편자 담화의 경우에서처럼, 존재론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E-O 함축에 기대는 실재론자들이 이 주장에 맞서고자 한다면, 이는 E-O 함축을 단지 주장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E-O 함축과 별개로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할 긍정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을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 무엇이 있을지는 분명하지 못하다.

### 3. 이상적인 설명의 경우

이제 혹자는, 만약 어떤 이상적인 체계에서의 설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E-O 우선성을 만족하지 않을지 반문할 수 있다. 가령, 충분히 성숙한 과학이 보편적인 상식이 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실들에 대한 설명을 그 과학이 상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존재자들을 통한 설명으로 환원하는 것이 허용됨 직하다. 마치 귀신이나 정령 등을 자연 현상의 설명에 사용하던 사회가 현대 과학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그러한 기이한 존재자들 대신 과학 이론이 상정하는, 그 존재성을 받아들일 만한 존재자들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아주 충분히 과학적 탐구가 발전했고, 그 탐구의 내용이 충분히

상식적이 되어서, 모든 존재할 만한 존재자를 통한 설명만이 수용되게 된다면, E-O 함축은 성립할 것이다.

나는 이상적인 설명에 있어 E-O 함축이 성립하리라는 데에 별 이견이 없다. 차라리 이 경우 E-O 함축은 아주 사소한 사실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이는 보편자의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으로부터의 요구와 별 상관없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상적인 설명에서의 E-O 함축으로부터 보편자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이며, 나아가 이상적인 설명에서는 그러한 존재자들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보편자와 같이 의심스러운 추상적 존재자가 우리의 수용할 만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차라리 우리의 설명이 이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 이상적인 설명에서의 E-O 함축이 물임이나 황색광임 따위의 보편자가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면, 이는 단지 우리의 존재론에 있어 물임, 황색광임 따위가 단순 개체가 갖는 근본적 특성임을 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물임, 황색임이 그러한 특성이라면, 여전히 이는 우리의 존재론에 부담을 지우는 존재자를 산입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즉, 이상적인 설명으로부터의 존재론적 함축에 있어서도 딜레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 개체가 갖는 원초적 특성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길 뿐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 문제와 이어질 것이다.

#### IV. 자연종과 존재론

##### 1. 자연종

어떤 술어들에 있어, 그 술어의 외연은 우리가 그 술어를 어떤 기술구를 통해 정의하는지, 우리가 그 술어를 통해 어떤 대상들을 일컫고자 하는지 따

위외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가령, “황금”이 그런 부류의 술어라면, “황금”은 정신 독립적으로 모든 황금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황금”을 기술구 “노란 금속”을 통해 정의하건, 우리가 어떤 황철석을 “황금”으로 부르건, “황금”은 황금을 의미할 것이다. 통례를 따라, 이런 부류의 술어가 표현하는 것을 “자연종”이라고 부르자.

자연종 술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외연을 가짐에 있어 비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자연종 술어는 우리의 개념망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건 고정된 외연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의 사회가 “물은 표준 대기압에서 섭씨 100도에 기화한다”를 근본적인 이론적 문장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물”에 대한 의미를 고정시키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표준적 상황에서 섭씨 100도에 기화하는 물의 사례들만을 확인했지만, 어떤 숨겨진 자연적 사실로 인해 표준 대기압, 섭씨 100도 상황에서도 물이 기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경우를 두고 ‘물이 기화하지 않는 경우’로 일컬을 수 있더라도 “물”은 우리의 개념망에서의 위치를 통해서가 아닌 어떤 정신 독립적 측면을 통해 그 외연을 가져야 한다.

또, 자연종 술어들은 논리적으로 단순하다. 가령, 굿맨(Goodman, 1978)의 ‘초랑’은 ‘t 이전에 초록이었음 또는 t 이후에 파랑이었음’와 같이 논리적으로 복합적일 것임이 분명한 반면, ‘초록’이 ‘t 이전에 초랑이었음 또는 t 이후에 파랑이었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럴 듯하지 못하다. 비록 어떤 자연종, 가령 ‘H<sub>2</sub>O’는 어떤 점에서 복합적일 수는 있으나, ‘H<sub>2</sub>O’가 복합적인 것은 화학적인 측면에서이지, ‘...가 H<sub>2</sub>O로 구성된다’를 보다 단순한 술어들의 논리적 합성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자연종 술어들은 그것이 귀속되는 존재자들이 언급되는 진술들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술어로 기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종 술어의 특징에 비해, 우리가 아는 한 자연종 술어의 도입 과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단지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가리킨 뒤, 그것이 갖는 특정한 측면의 속성을 어떤 낱말로 정의한다. 그런데 만일 그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이 이 정의의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바로 그 대상들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는 (4)의 경우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4')와 (4)가 비록 그 설명적 의의의 차원에서는 차이 날지 모르나, (4')는 (4)의 부분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4)는 더 근본적인 사실들을 설명함에 두는 문장들로부터 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연종 술어의 정의, 가령 어떤 물 덩어리를 가리키며 “물”을 정의한다면 ‘aa를 “물”로 일컫은 것이 “물”의 외연을 {물}로 결정했다’라는 설명이 성립할 텐데, 왜 하필 그 외연이 {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사실들이 무엇 인지는, 보편자가 가정되지 않는 한, 불가사의하다.

이 두 특징은 존재론과 자연종의 관계를 고찰하게 한다. 자연종이 우리 존재론이 포함하는 원초적 특성도, 그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모종의 이유로 그 외연이 비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고, 또 모종의 이유로 분석 불가능한 술어들이 산입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우리의 담화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술어들의 기능 방식을 너무나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겨두고 만다. 반면, 이러한 불가사의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종이라는 추상적 존재자를 우리의 존재론에 단지 추가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자를 이미 우리의 존재론에 산입하고 있지 않았던 한 존재론적 적절성에 위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자연종이 우리 존재론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연종은 보편자 이론의 진정한 딜레마를 위한 한 사례가 된다.

## 2.근본적 존재론의 채택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자연종이 우리의 근본적 존재론에 원초적 특성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또는 이를 통해 환원될 수 있다면, 자연종의 도입은 존재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아닐 것이다. 자연종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그 근본적 존재론에 대한 재진술에 불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존재론에 자연종을 ‘도입’하는 것 대신, 자연종 술

어에 대응되는, 또는 이를 환원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하는 존재론을 우리의 존재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자연종을 통해 근본적 존재론을 채택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물론 상당수의 유명론적 입장은 거부될 것이다. 가령, 오로지 개별자와 언표들(이름, 술어, 문법·논리적 상황 ...)만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유명론적 이론이 자연종에 대한 적절한 환원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유명론적 입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 존재자로서 보편자를 인정하는 대신, 어떤 근본적이고 배타적인 집합들을 상정하여 그 집합들을 통해 자연종을 환원하고자 하는 집합 유명론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존재론을 근본적인 것으로 채택하든 바뀌지 않는 것은, 존재론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이는 자연종 개념을 어떤 다른 근본적 개념으로 환원할 수 있겠느냐는 이념론적 문제에만 개입할 뿐이다. 자연종이 원초적 특성인 존재론에서는 물론이고, 자연종을 단순 개체나 원초적 특성으로 환원할 수만 있다면, 결국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론에 이미 포함된 요소들뿐이게 된다. 따라서, 자연종을 근본적 존재론의 채택 기준으로 삼는다면, 역시나 보편자 이론의 딜레마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자연종은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을 선별하는가?

그러나 자연종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 존재론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이 선별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어떤 방향의 환원이 실제로 성립하는 것인지를 정당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상이한 두 근본적 존재론이 자연종에 대한 적합한 환원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령 두 존재론이 동일하게 자연종에 대한 환원에 성공하지만, 하나의 존재론은 특정한 이유에서 심리적 존재자와 물리적 존재자를 모두 근본적인 데에 두고, 다른 존재론은 물리적 존재자만을 근본적인 데에 둘지도 모른다. 자연종 자체는 여기에서 선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종 또는 그 환원을 포함하는 존재론을 근본적 존재론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종의 포함 또는 자연종에 대한 환원 가능성을 특정한 존재론의 배타적인 채택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특정한 존재론을 배타적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자연종 외의 추가적인, 또한 결정적인 선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는 비단 자연종뿐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위해 취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가령, 카르납은 그의 《세계의 논리적 구조》에서, 심리적 존재자들을 근본적 존재자로 삼는 존재론도, 물리적 존재자들을 근본적 존재자로 삼는 존재론도 취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Carnap, 2003, §57). 비록 카르납 자신은 자신에 목적을 따라 심리적 존재자들을 근본적인 것으로 삼으며 그의 체계를 전개하지만, 이는 심리적 사실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존재론이 단일하게 올바른 존재론이기 때문이 아닌, 단지 이론 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의 선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단지 어떤 단일한 존재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형이상학적 열망이 그 기준을 찾을 유인을 제공할 뿐이다. 물론 단일한 존재론을 찾을 수 없음에 대한 증거 역시 우리에게서는 주어지지 않지만 말이다.

## V. 결론

본고의 서두에서는 보편자를 위한 네 측면에서의 설명적 올바름의 요구와 이에 대비되는 존재론적 적절성의 요구가 소개되었고, 이 두 요구는 일견 상충하며 보편자 이론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본론에서 상술되었듯, 네 측면에서의 요구는, 반이들일 만한 전제 하에서, 실상 존재론적 적절성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자 이론에 딜레마가 있

지 않음을 견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한편 말미에서는 자연종을 우리의 근본적 존재론 채택에 있어 도구로 삼는 경우가 고려되었다. 자연종이 근본적 존재론의 채택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존재론적 부담 없이 자연종을 취함과 동시에 존재론을 선별할 수 있는 두 갈래의 이론적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상이한 두 근본적 존재론이 자연종에 대한 적합한 환원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러했다.

이는 하나의 메타존재론적 함의를 갖는다. 만일 본고에서 논한 것보다 더 강한, 근본적 존재론 채택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단일한 근본적 존재론을 정당하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적어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존재론을 취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단지 말싸움(verbal dispute), 또는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위에 놓여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보편자 이론에 놓여있는 이론적 난감함보다 더 큰 곤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주제어】** 분석철학, 형이상학, 존재론, 보편자, 속성

[참고문헌]

- Carnap, R. (2003).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World." In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World and Pseudoproblems in Philosophy*, 5-304. Open Court Publishing.
- Devitt, M. (1980). "'Ostrich Nominalism" or "Mirage Realism"?"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1 (4): 433-449.
- Goodman, N. (1978). *Ways of Worldmaking*. Indianapolis: Hackett Pub. Co.
- Kripke, S. A. (1980). *Naming and Neces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4): 343-377.
- Quine, W. V. O. (1948). "On What There is." *The Review of Metaphysics*: 21-38.
- Russell, B.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William & Norgate.
- Van Inwagen, P. (2004). "A Theory of Properties." In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edited by Dean Zimmerman, 107-138. Clarendon Press.

## [국문초록]

보편자 이론은 두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다. 한편으로, 보편자 이론은 설명적으로 올바라야 한다. 즉, 우리의 일상적 담화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진술들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들은, 이를 이해 또는 수용함에 있어 보편자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자 이론은 존재론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믿기 어려운 존재자에 대해 충분한 이유 없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이론이나, 그 이론의 수용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새로운 존재자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이론은 보편자 이론으로서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는, 설명적으로 올바른 보편자 이론은 존재론적 적절성과 긴장 관계를 이를 수밖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는 상기한 두 요구에서 의한 것인데, 둘 중 어느 요구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딜레마이다. 철학, 또는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경험 세계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철학 이론이 경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설명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철학 이론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한편, 철학 이론이 과도한 존재론적 부담을 지우는 것 또한 기피되는 것이 마땅하다. 철학 이론의 정당화는 선험적 정당화이며, 어떤 존재자의 존재성에 대한 선험적 주장은 임의로 취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이 딜레마를 해소한다. 설명적 요구가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없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답해질 수 있다. 한편, 설명적 요구가 적절한 존재론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것은 이것이 설명적 우선성 도입 요구로 이해되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그런데 설명적 우선성의 요구란, 반드시 어떤 존재론적 우선성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 그런 요청이다. 따라서 딜레마란 발생할 필요가 없었다. 끝으로, 나는 자연종 술어로부터의 요구에 답하고자 시도한다.

[Abstract]

## Any Dilemma for Theorizing Universals?

Ha, Wonjae (Yonsei University)

The theory of universals faces two opposing demands. On the one hand, it must be explanatory. That is, certain kinds of statements found in our everyday discourse and the theories used to explain them seem to require the existence of universals for their understanding or acceptance.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ontologically appropriate. This means that theories that intervene ontologically without sufficient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implausible entities or theories that result in an excessive proliferation of new entities should not be embraced as theories of universals.

The problem is that a theoretically sound theory of universals appears to inevitably involve a tension between explanatory and ontological appropriateness. This dilemma arises from the two aforementioned demands, and it is a genuine dilemma in that it is difficult to give up either demand. Philosophy, or metaphysics, fundamentally aims to explain the facts of the experiential world. If a philosophical theory fails to adequately satisfy our explanatory demands regarding the experiential world, it is not suitable as a philosophical theory. Conversely, it is also undesirable for a philosophical theory to impose excessive ontological burdens. The justification of a philosophical theory is a priori, and any a priori claims about the existence of entities should not be arbitrarily adopted.

This article resolves this dilemma as follows: If the explanatory demand requires reduction from an ontological standpoint, it can be adequately addressed through unproblematic means.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 conflict between the explanatory demand and appropriate ontology only arises when it is understood as a demand for explanatory priority. However, such a deman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introduction of any ontological priority. Therefore, there was no need for the dilemma to arise. Finally, I attempt to respond to the demands from natural kind predicates.

**[Keywords]** Analytic Philosophy, Metaphysics, Ontology, Universals, Properties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12일 /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8일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7일

**【저자연락처】** [wonjae.ha@yonsei.ac.kr](mailto:wonjae.ha@yonsei.ac.kr)